

가격도 반으로 접었다... '반값 폴더블 폰' 출격 준비

〈갤럭시 폴드 라이트〉



삼성전자가 앞서 출시한 폴더블(접을 수 있는)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와 '갤럭시Z 플립' 보다 더욱 낮은 가격의 '갤럭시 폴드 라이트'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폴더블 폰에 대한 가격 장벽을 낮춰 소비자들을 유입시키려는 전략으로,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IT 개발자 전문 커뮤니티 XDA 디벨로퍼의 맥스 웨인바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1100달러(약 135만원)로 가격을 낮춘 갤럭시 폴드 라이트를 준비 중이다. 이렇게 되면 갤럭시 폴드 라이트는 지난해 9월 출시된 갤럭시 폴드 출고가인 239만8000원 보다 100만원가량 저렴해진다. 올해 2월 출시한 갤럭시Z 플립 출고가는 165만원이다. 웨인바흐는 '갤럭시 S20' 시리즈가 나오기 전에도 제품 정보를 미리 공개한 바 있다.



갤 폴드 보다 100만원 저렴한 135만원 예상 4G LTE 모델 출시... 스냅드래곤 865 탑재

외부알림창, 갤럭시Z 플립 보다 작아지고 저장용량 256GB, 미러블랙·미러퍼플 2종

웨인바흐에 따르면 갤럭시 폴드 라이트는 4G LTE 모델로 출시되며 칩셋은 스냅드래곤 865가 탑재된다. 울트라 신크라스(UTG) 소재는 채택하지 않는다. 삼성전자는 폴더블 폰 화면에 주름이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 갤럭시Z 플립에 초박형 강화유리인 UTG를 적용했다. 앞서 나온 갤럭시 폴드의 경우 플라스틱 소재인 투명 폴리이미드 필름(CPI)이 사용됐다.

접었을 때 시간과 메시지 등 알림을

보여주는 외부 알림창의 크기는 갤럭시Z 플립 보다 더 작아질 것으로 보인다. 저장용량은 256GB에 색상은 비용 절감을 위해 갤럭시Z 플립과 동일한 미러블랙과 미러 퍼플로 나올 예정이다.

웨인바흐는 갤럭시 폴드 라이트의 사양 공개와 함께 "정보가 빠르게 변하는 경향이 있다"며 출시 전까지는 관련 사양들이 바뀔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며칠 전에도 트위터를 통해 삼성전자가 갤럭시 폴드 관련 3개 모델

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린 바 있다.

갤럭시 폴드 라이트와 함께 추가적으로 폴더블 폰이 등장한다면 삼성전자는 폴더블 폰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아직까지 폴더블 폰 출시에 대한 소식이 없고, 화웨이 '메이트 X'와 '메이트 Xs'를 모토로가 '레이저'를 출시했지만 이들 폴더블 폰은 모두 내구성 논란을 겪었다. 삼성전자가 앞서 갤럭시 폴드 출시 당시 힌지 결함 논란을 겪었지만 약 5개

월간 보안을 거쳐 세계 최초로 폴더블 폰을 출시했고, 이후 국내를 포함해 전세계 각국에서 초기 완판 행진을 이어갔다.

특히 갤럭시Z 플립은 코로나19로 소비 심리가 위축된 상황 속에서도 출시 후 약 37만대가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IT 매체 샘모바일에 따르면 갤럭시Z 플립의 3월 글로벌 판매량은 2월 판매량인 14만7000대에서 56.1% 늘어난 23만대를 기록했다.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휴대폰 판매량인 6400만대를 놓고 보면 23만대라는 수치가 낮아보일 수 있지만 향후 폴더블 폰 시장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보면 긍정적이다.

유안타증권의 '중소형 OLED 중장기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은 올해 500만대 수준에서 2022년에는 5000만대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안타증권은 오는 2022년 애플이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에 진입해 폴더블 폰 제품의 라인업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 1면 '유망 스타트업 발굴...'서 계속

문재인 대통령 "혁신아이디어 사업화에 정부, 끝까지 힘 될 것"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는 디지털 경제로 전환 과정에서 빅뱅이 예상되는 언택트, 온라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바이오 중심 신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민·관 합동 공동펀드이다.

문 대통령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성장 중인 청년 스타트업 기업인에 대한 격려와 함께 과감하고 신속한 정책적 지원으로 스타트업 육성 의지까지 표명한 셈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미국 포브스사의 '30세 이하 아시아 글로벌 리더'에 선정된 청년 스타트업 기업인 21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청년 스타트업 기업인들에게 "오늘의 주인공들은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고 있다. 우리 경제의 미래가 여러분의 혁신에 달려 있다"며 "(혁신벤처·스타트업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사업화돼 세계 무대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힘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혁신 창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여러분이 성공해야 더 많은 청년들이 스타트업에 뛰어들고, 혁신 창업의 물결이 경제 전반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 벤처 투자 실적은 2017년(2조3803억원) 이후 2018년(3조4249억원), 2019년(4조2777억원) 등 최근 3년간 매년 조 단위 숫자가 바뀔 정도로 급격한 상승세를 기록했다. 국가별 유니콘 숫자도 올해 3월 기준 한국이 11곳으로 미국(22개)·중국(108개)·영국(24개)·인도(21개)·독일(12개)에 이어 6번째 많은 나라로 꼽혔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혁신금융서비스 102건 지정... 대출이자 등 비용 줄였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

16개 기업서 1364억 투자유치 34곳서 380여개 일자리 창출 인도네시아 등 14국 진출 성과

#. 생활비가 모자라 대출을 알아보던 A씨는 매년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거절당했다. 정지적 소득이나 기존 금융거래 이력이 없어 신용평점을 내기 어려운 탓이었다. 하지만 A씨는 최근 은행대출을 받는데 성공했다. 핀테크 내놓은 '통신료 납부정보 기반 신용평가 서비스'에서 미납없이 납부한 통신요금 정보로 신용평점을 낼 수 있게 돼서다.

A씨 처럼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혁신 금융서비스로 금융생활이 달라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샌드

박스로 혁신금융서비스가 사업화되면서 소비자 편익이 증대되고, 약 38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분석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한 1년 간 총 10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사업자들이 기존 규제 적용을 받지 않고 혁신금융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핀테크기업이 54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회사 39건 ▲IT기업 4건 ▲공공분야 3건이 뒤를 이었다. 분야별로는 은행이 16건으로 가장 많고 ▲보험 15건 ▲대출비교 14건 ▲카드 13건 ▲데이터 12건 ▲전자금융 11건 ▲외국환 3건 순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 중 36건 서비스가 출시됐고 상반기 중 66개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다

혁신금융서비스는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켰다. 대출이자나 보험료 등 국민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고 있어서다. 예컨대 농협손해보험과 레이니스트가 출시한 온-오프 해외여행자 보험은 간단하게 여행자보험을 가입·해지할 수 있게 해 부분별한 보험료 부담을 덜게 했다.

혁신적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화되면서 ▲모험자본 유치 ▲고용 증가 ▲해외시장 진출 등 선순환 생태계도 조성됐다. 혁신금융서비스가 시행된 1년간 16개 핀테크·스타트업은 총 1364억원의 신규투자를 유치했고, 34개 핀테크·스타트업은 총 38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또 7개 핀테크 기업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홍콩 등 총 14개국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도 가속화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 샌드박스는 금융과 신기술의 접목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실명확인, 자본시장 등 다양한 금융분야를 통해 블록체인의 효율성, 안전성 등을 테스트하고 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동산 시세평가, 챗봇서비스, 신용평가도 시행하고 있다. 안면인식기술, 암호화기술 등도 샌드박스를 통해 금융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위는 5월부터 분야별로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추가로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데이터·플랫폼 중심 금융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혁신적 시도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고용 쇼크' 공공일자리 156만개 긴급제공

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55만개+α 노인일자리 등 60만개 신속재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 쇼크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부문 중심으로 일자리 156만개를 긴급 제공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정상 추진되지 못했던 노인일자리 등 약 60여만개 정부 일자리는 신속히 재개하고,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55만개+α를 추가로 만든다. 공무원·공공기관 채용 절차도 5월 중 재개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4만8000명을 채용한다. /한승수 기자 hys7@

장관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고용충격과 관련해 긴급 고용·일자리 대책으로 이 같은 방안을 내놨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 주재 5차 비상경제 회의에서 마련하기로 결정한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패키지 대책의 후속 조치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156만개를 긴급 제공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올해 예산으로 만들기로 한 공공부문 직접일자리 94만5000개 중 그동안 코로나19로 정상 추진되지 못한 노인일자리와 자활근로사업 등 약 60여만개 일자리사업을 신속 재개한다. 휴직 등으로 중단된 정부 일자리 4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만 5000명명에 대해서는 아·노·온라인 등 감염 우려가 적은 활동으로 전환 가능한 경우 즉시 재개하고, 감염 확산 우려가 높은 일자리는 방역상황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재개한다.

나머지 아직 선발하지 못한 16만 7000명은 면접 등 선발 절차와 교육 일

정을 신속히 추진해 5~6월 중 최대한 채용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나 휴·폐업자, 소득이 줄어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피해계층에게 직접일자리 우선 제공한다. 소득·자산기준 초과 신청자 채용요건도 완화한다. /한승수 기자 hys7@